



최재상 마티아 신부 作

섬기다, 함께하다

‘같이의 가치’. 어느 광고 문구입니다.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성모님이 함께 걸으시고, 그분을 섬기는 이들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동행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요한 12,26) 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초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실 때 인간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계약 당사자로 삼으신 것처럼(창세 9,12-17 참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같이’, ‘함께’ 가치로운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며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였듯이(『찬미받으소서』, 11항.) 우리도 모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생태적 삶의 모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교회 안팎에서 생태를 이야기하면서 늘 모범이 되는 이로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심지어 생태적 위기의 근원 중 하나로 그리스도교를 비판했던 린 화이트 Jr.조차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 위기 시대의 대안 인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 교황 교서를 통해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천상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생태적 삶의 모범으로 언급할까요?

린 화이트 Jr.의 경우는 그의 논문에서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가 프란치스코를 생태론적 모범으로 언급한 이유는 성 프란치스코가 자연에 대한,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그는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살았던 신비주의자이자 순례자”(『찬미받으소서』, 10항)로 성 프란치스코를 소개하며, 그가 “자연보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 사회적 헌신, 내적 평화가 어떠한 불가분의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교적 통합생태론의 모범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생태적 위기나 기후 변화의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기에,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생태적인 삶을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였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선을 체험하고 관상하며 찬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프란치스코 성인을 교회 안팎에서 생태적 삶의 모범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현대 사회에 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인류 공동체에 이바지하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생태적 위기의 시대에 가톨릭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를 성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의 찬가” 혹은 “태양의 찬가”(이하 태양의 찬가)의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인용된 이 구절,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라는 구절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선과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께 속하며, 당신께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찬미받으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인식은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기본 공식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존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프란치스코가 가진 세계관이자 관계 맺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성 보나벤투라의 전기 내용, “그는 만물의 공통 원천에 관한 성찰로 더 큰 경외심에 가득 차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곤 하였습니다.”를 인용하시며 재확인하십니다.([찬미받으소서], 10항) 프란치스코가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공통 원천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또 다른 전기 작가인 첼라노의 토마스는 “피조물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는 그것을 창조주와 관련시켰다. 그는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모든 작품 안에서 즐거워하였고, 유쾌한 사물들의 배후의 뜻을 살핌으로써 그 사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성과 원인을 보았다.”(2첼라노 165)라고 전하는데, 이는 프란치스코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에 대한 호의와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주의’ 안에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는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창조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피조물을 바라봅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은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며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소유이기에 하느님께 찬미를 돌려드려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물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이해는 자연중심적이지도, 인간중심적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이해하였기에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형제적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선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생태 위기를 원인이 되는 왜곡된 인간중심주의와 과학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자연은 물론 인간마저 그 내재적 가치를 무시한 채 도구화하고 착취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성 프란치스코를 생태론의 모범으로 거론한다는 것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창조 세계의 한 구성원인 인간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상호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 안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던지는 의미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안에서 창조 세계와 그 근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적 회개’라는 점입니다. 결국 신앙과 생태적 삶은 별개의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원칙이며, 생태적 회개가 없이는 참된 회개는 없으며, 참된 신앙은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샌디에고 *Franc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코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탄소 발자국^{2040*}을 줄입시다!

*글자체: 빙하체, '노타입' 개발, '글자 축'을 활용해 북극해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주 빙하량연도는 2040년입니다.

실천사항 5 고쳐쓰기_Repurpose

'의류산업'의 불편한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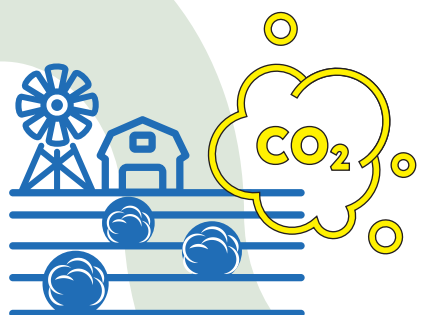
옷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KBS 환경스페셜
오늘 당신이 버린 옷, 어디로 갔을까?
[2022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폐기

대부분 재활용 되지 않음

매년 발생하는 9,200만톤의 의류 폐기물 중,
옷으로 재활용 되는 것은 **1%**(87% 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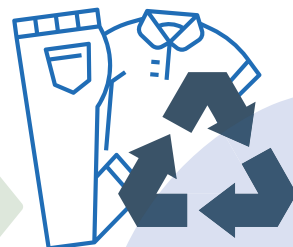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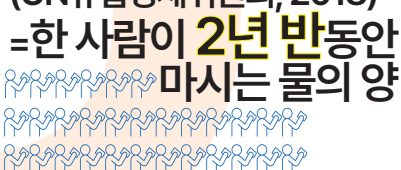


면화 재배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및 **탄소 배출**



티셔츠 1개 생산
약 2,700리터 물 소비
(UN유럽경제위원회, 2018)
=한 사람이 **2년 반**동안
마시는 물의 양



재활용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됨

다운사이클링 제품(카펫, 단열재 등)은 단계가 내려갈수록
품질이 낮아지며 2-3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 처리됨
또는 **의류 폐기물 추출 실로 만든 의류** (단점: 비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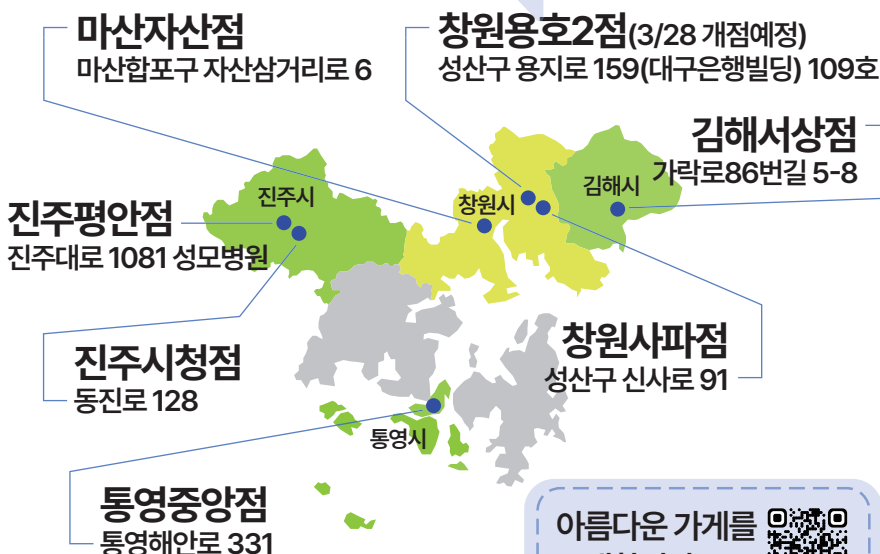
함께! 고쳐 입어요

1. 옷이 헤어져도 버리기 않기
- 헤어진 팔꿈치, 무릎 등에 천을 덧대어 입기
2. 지겨워진 옷, 소품을 활용하기
- 와펜, 패치 등을 부착하여 포인트 주기
3. 작아진 옷 활용하기
- 아이옷 또는 반려동물 옷으로 수선하기
4. 늘어난 티셔츠로 패브릭안(실) 만들기
- 티셔츠로 패브릭안(실)을 만들어 러그, 쿠션, 인형 등 뜨개질로 만들 수 있는 소품 만들기

참고하세요!
업사이클링 DIY | 안 입은 티셔츠로 패브릭안 만들기
[YOUTUBE 채널: 꼬끼리 별꽃]



함께! 가요,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를
소개합니다:)